

논문접수일 : 2012.09.17

심사일 : 2012.10.06

게재확정일 : 2012.10.27

복식에 나타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The Concepts of Body by Foucault and Merleau-Ponty in Dress

이 민 선

상명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부교수

Lee min-su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1. 서 론

2. 푸코의 몸 개념과 복식

- 2.1. 푸코의 몸 개념
- 2.2. 복식에 나타난 푸코의 몸 개념

3.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과 복식

- 3.1.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 3.2. 복식에 나타난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4. 복식에 나타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비교 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의복은 몸에 대한 관념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복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본 연구는 몸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 둘의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복식사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삼고자 진행되었다.

푸코는 정치적 의도와 기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하는 반면 메를로-퐁티는 몸은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은 이상미를 상징하고 사람들의 무분별한 추종을 유도한다. 이를 복식사에 적용하면 권력의 작용과 이에 대해 저항하는 힘의 역학 관계가 늘 복식의 변화를 이끌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빅토리안 시대에 형성된 극단적인 성차를 지닌 남녀의 복식과 이에 저항적 복식으로 나타난 샤넬수타와 슈트수트 등이 그 예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몸은 주체로서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이를 복식사에 적용하면 권력 투쟁의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형성된 복식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시아의 디자이너나 북유럽의 디자이너들의 자연친화적 디자인들이 그 예이다.

복식사의 사례들은 일견 대립되어 보이는 두 철학자들의 몸에 관한 견해를 적용한다면 복식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몸 개념, 푸코, 메를로-퐁티

Abstract

One can accept and visualize various concepts of the body through clothing.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hanging concepts of the body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change of the d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useful tool for explaining how dresses have been chang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Victorian era to now. This tool owes mainly the two contradictory views on the body by Foucault and Merleau-ponty complementarily.

Foucault understands the body and its actions on the basis of the power group's intention and function. On the contrary Merleau-ponty recognizes the body as an active being which acts subjectively.

According to Foucault, the power group brings in its ideal beauty and induces the public follow it. Based on the view of Foucault, we can confirm that the dynamics between the power groups and the opposition groups have led the change of dresses. The Victorian dress of men and women was introduced by the power group and against it, the dress of the opposition group like zoot-suit and channel dresses were appeared.

According to Merleau-ponty, the body is a subject interacting the surroundings. Based on the view of Merleau-ponty, Asian designers and Northern European designers have created dresses within mind that human beings are part of the nature interacting surroundings.

These cases in dress history imply that the two contradictory concepts of the body by Foucault and Merleau-ponty can be a useful tool for explaining the change of dress on the whole.

Keyword

Body concept, Foucault, Merleau-Ponty

1. 서론

크레이크는(Craik, 1994, p.9) 의복을 "신체 기교"라 정의하였다. 이 말은 의복이 몸에 대한 관념의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중 앞에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복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20세기 이후 몸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은 근대 복식의 형성과 변천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9세기까지 정신은 위대한 가치를 지닌 기능이었던 데에 비해서 몸은 정신이 깃들고 정신을 운반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구 역사에서 몸은 오랫동안 정신에 비해 열등한 것, 억압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유잉에(Ewing, 1994/1997) 의하면 화가나 사진작가 등 몸을 표현하는 목표는 몸의 수성을 초월하여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즉 몸은 인간 정신세계의 고상함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실보다 우아하고 격조있게 미화되어 표현되었다. 인간의 천한 속성을 상징하는 몸은 오직 의학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질병은 몸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몸을 표현하는 매체들에는 19세기의 격조 높은 인물상을 거부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몸들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범주의 인간들이 지니는 몸에 대한 객관적 관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더 나아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몸은 자아 정체성의 축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고, 소유자의 노력과 각성으로 몸을 만들고 다듬는 양식을 생겨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몸을 타고난 자연물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제작되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강미라, 2011)

철학 분야에서도 20세기 중반 이후 후기구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푸코(Foucault), 들뢰즈(Deleuze), 보드리야르(Baudrillard), 부르디외(Bourdieu), 메를로-퐁티(Merleau-Ponty) 등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은 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고, 이는 복식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인용되었다.

오늘날 몸과 관련된 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몸을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담론과 몸을 능동적으로 삶을 전개하는 주체로 보는 담론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이 그러하다. 즉 푸코의 몸 개념은 권력행사의

장이 되어온 수동적인 몸인 반면, 메를로-퐁티의 몸은 지각과 행동의 주체인 능동적인 몸이다.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은 복식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종종 이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몸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하는 두 철학자의 입장은 복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복식을 이해하는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몸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복식 현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 몸에 관한 어느 한쪽의 담론만을 적용하기 보다는 두 가지 상반된 담론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복식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에 대한 개념이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복식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푸코의 몸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복식사에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복식사에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복식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에 대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복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정립한다.

연구방법으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에 관한 연구는 철학 및 사회학 등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를 복식사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사례들을 발굴하여 해석할 것이다. 복식사의 사례들은 복식사 문헌 및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빅토리안 시대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1819년 막을 연 빅토리안 시대는 양식상의 혁신이 시도된 시기였다. 산업 혁명과 맞물려 남성복에서는 수트가 발명되어 근대 복식의 원형이 정립되었으며, 여성복에서는 국제화와 더불어 동방의 스타일의 유입으로 절충주의 양식이 고조를 이루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복식의 성차가 뚜렷해지면서 남녀 성별의 차이를 각인하기 위한 시도와 이에 저항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현재까지 복식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2. 푸코의 몸 개념과 복식

2.1. 푸코의 몸 개념

강미라에(2011)의하면 푸코의 몸은 목적적 행위를 하는 몸이다. 여기서 목적은 생리적인 내적 목적 뿐만 아니라 외적 목적도 있다. 이 외적 목적이 바로 권력의 의도이다. 또한 그 의도는 역사적으로 각인된다. 따라서 몸에 대한 무한한 실천은 바로 권력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권력 집단은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념을 형상화하고 이는 몸에 각인된다. 이 때 복식은 몸에 대한 관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시대의 복식은 결국 권력의 의도대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일반적으로 권력하면 떠올리게 되는 지배 권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푸코는(Foucault, 1976) 권력을 개인이나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효과'로 보았다. 푸코는 권력이 수많은 형식을 취하며 억압적인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형식에 대해 생산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권력은 유일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제 안에서 다양하게 두루 존재하는 그물망이다. 즉 지배와 피지배라는 의미는 지배 계층과 피 지배 계층을 의미하는 거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 내의 다양한 관계 내에서 미시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관계 즉 학생과 선생, 환자와 의사 등 시시각각으로 형성되는 관계 내의 힘의 역학 관계를 의미한다. 지배 계급과 피 지배 계급 간 뿐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간 등등 사회 내에서 영구적 및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관계 내에 권력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단순히 금지하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권력은 그것이 작용한 대상을 지정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한다.(양운덕, 2003) 즉 권력은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힘이 된다. 권력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고, 개인을 자신의 개별성에 의해 특징지어주며, 개인을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에 밀착시키되, 그가 인정해야하고 타인들이 그에게서 인식해야 하는 진리의 법칙을 그에게 부과한다.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권력의 형식인 것이다. 주체라는 말에는 통제와 의존에 의해 누군가에게 종속(subject to)되는 것과 양심 또는 자기-지식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묶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정복(subjuates)하고 종속시키는 형식을 시사한다.(정일준, 1994) 즉 권력은 마치 자발적으로 원해서 주체적으로 몸 위에 어떠한 형태의 실천을 행한다고 오인하게 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권력에 종속된, 또는 정복당하여 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권력의 효과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의 정치해부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방법으로 결정된 속도와 효율성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과 그들의 몸을 장악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일상적 행동의 자동적 운동은 규율과 훈육으로 설명된다. 물론 이는 권력에 의한 수동적 행동이다. 푸코에게 있어 생리적인 몸은 규율이 가해져 의도적인 몸이 된다. 다시 말해 규율에 의해 몸의 표면에 그 의도가 새겨짐으로써 몸은 생리적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의미 작용은 오직 권력의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몸이 시선의 주체보다는 대상으로서 더 자주 훈련되는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여성 실존의 특수한 양상들은 여자의 몸이 생물학적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푸코의 몸은 권력의 작용을 받는 수동적인 물질이다.(강미라, 2011)

2.2. 복식에 나타난 푸코의 몸 개념

푸코에게 있어 통치는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배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항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권력의 작용과 저항의 가능성이라는 힘의 역학 관계가 늘 복식을 비롯한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다.

김민자는(2004) 짐멜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급과 복식과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짐멜(Simmel, 1904)은 계급상징의 동조성과 개인 차별화의 도구로서 패션을 진술한다. 패션이란 모방과 창조의 사이클이다. 짐멜은 유동성이 있는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대한 하류층의 모방심리가 확대된다고 하였다. 패션 리더인 엘리트층은 그들의 유일 무이성을 유지하고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스타일을 혁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하였다. 짐멜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패션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공유된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효과인 것이다. 즉 권력은 계급 차별이라는 목표를 복식을 통해 고착화하고자 하였다. 하류 계층의 상류 계급 복식에 대한 모방 심리와 상류 계층의 하류 계층 간의 끊임없는 차별의 욕구는 유행 변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즉 권력은 선망의 대상을 만들고, 이를 동경하는 자에게 단지 심리적일지라도 수혜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이념을 뿌리 깊게 고착화 시킨다. 그러나 하위문화집단의

복식의 역사는 이러한 권력이 상징해온 계급 상징의 드레스코드를 파기함으로써 형성되어왔다.

[그림 1]은 19세기 초 부르조아 계급의 복식으로 경제력을 장악한 신흥 계급의 복식이다. 이들은 이전의 사치스러운 방탕한 귀족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계급의 시대가 열림을 알리기 위해 검소하고 허세 없는 무채색의 남성수트를 착용하였다. 즉 무채색의 남성수트는 신흥 부르조아 계급이라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림 1] 1904년대 영국 부르조아 계급의 남성복 (출처 : Hopkins, J. (2011). BASICS: Fashion Design -Menswear.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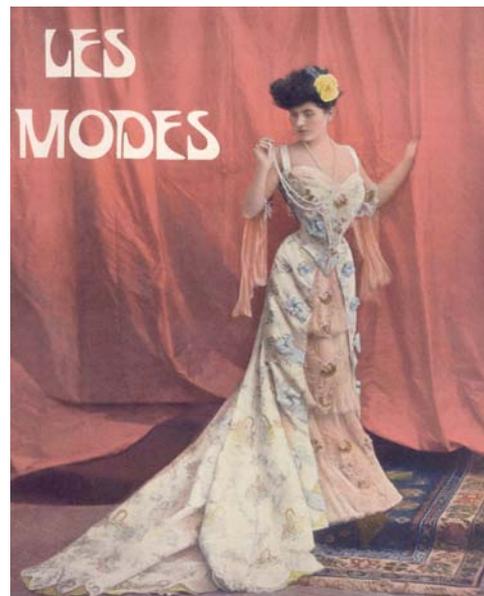
[그림 2]는 19세기 이후 이성과 합리성을 남성의 가치로 상징한 부르조아 계급에 저항하기 위해 남성복에 가해진 저항적 형태이다. 20세기 중반이후까지 다양하게 변형된 남성 수트의 등장은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표방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1940년대의 쥬트수트(zoot-suit)는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 메인 스트림 문화에 저항한 저항적 복식 문화이다. 미국 흑인들은 동남아풍 모자와 여성적인 커다란 리본, 긴 옷길이 등으로 기존 서양 남성 엘리트 계급의 가치 질서를 조롱하고 그들의 자유, 위트를 표현하였다.

통시적인 객관성의 미가 아니라 시대마다 추구했던 미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또한 권력의 효과를 방증하는 예이다. 시대적 이상미의 보편성은 그 시대 안에서 보편적이고 공통되는 미이자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이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기

인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에 의해 형성되고 전파되는 미적가치로서의 이상미는 바로 권력의 효과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관점에서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시대적 이상미가 형성되고 강요되어 왔다. 이에 대한 저항적 복식들 또한 복식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왔다.



[그림 2] 1940년대 쥬트 수트 (출처 : Hopkins, J. (2011). BASICS: Fashion Design -Menswear. p.41.)



[그림 3] 1902년대 갈라 드레스 (출처 : Blackman, C. (2012). 100 Years of Fashion. p.22.)

[그림 3]은 빅토리안 시대 여성의 복식이다. 이 시기 여성의 의무는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는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된 이시기는 그 차이만큼이나 복식형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권력을 쥐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의 복식은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부풀리고 더욱 장식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여성을 억압하는 복식은 남성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림 4] 1920년대 사냥 중인 샤넬 (출처 : Seeling, C. (2010). Fashion. p.65.)

[그림 4]는 샤넬의 복식이다. 샤넬은 1920년대 빅토리안시대 여성 복식의 잔재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켰다. 당시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던 코르셋을 폐기하고 남성복에서 영감을 얻은 여성복을 창조해냈다. 러시아 발레단으로부터 전해진 동방풍의 영향과 아르데코양식의 기능적인 스타일 등 시대 정신의 흐름에 부응한 샤넬 스타일은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 갔다. 즉 샤넬 스타일이란 남성이라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낸 새로운 양식이었다.

이와 같이 푸코가 말하는 자유와 저항은 여전히 권력관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며, 몸과 행동이 권력의 특수한 작동에 의해 조직된다는 주장은 복식을 설명할 때에도 유용하다.

푸코의 권력 이론과 몸 그리고 복식과의 관계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 예로 여성들의 마른 몸에 대한 열망을 들 수 있다. 다만 빅토리안 시대 처

럼 권력의 주체가 서양, 남성, 엘리트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사회 내에 미세하게 그물망처럼 퍼져 여성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모델들이 거식증을 앓아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림 5]는 거식증으로 사망한 프랑스 패션 모델 이사벨 카로의 생전 모습이다. 패션업계에서는 마른 모델 고용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패션 조직위원회는 몸무게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림 5] 모델 이사벨 카로 (출처 : <http://blog.naver.com/kos7357?Redirect=Log&logNo=119229479>)

3.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과 복식

3.1.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메를로-퐁티는 몸과 정신을 분리하고 몸을 천시하였던 이전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원론에 입각하여 몸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철학자이다. 인간 정신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포기한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과 '지각', '세계'를 철학의 기초로 하였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적 현상학에서 몸은 세계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과 소통하는 관계임을 주장한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객체가 아니라 객체와 관계를 맺게 하는 조건이자 매개로서 나아가고 경험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체적인 존재이다.(김성희, 2006) 몸이 곧 주체라는 개념은 의식과 대상 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현상 즉 대상과 의식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경험이다.(이효진, 2001)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몸이 곧 주체라는 견지에서 인간 존재를 설명한다. 지각에서부터 가장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지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활동이며 그러한 활동은 몸으로부터 가능한 근거를 갖는다. 몸은 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 맺으며 살고 있으며, 그 몸은 누군가의 고유한 몸이다. 메를로-퐁티에게 주체는 활동하고 경험하며, 세계로부터 의미를 길어낸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역사는 주체들의 신체성 내지는 상호 신체성에 근거한다. 즉 자연과 자유라는 두 계기에 열려있는 인간의 실존은 인간이 몸으로서 세계를 향해, 세계에서, 세계를 초월하며 살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몸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체로서는 일정한 환경에 결합하는 것이며 특정 계획에 뒤섞이는 것이며 그것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는 세계는 지각자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는 언제나 세계 내에 있으며, 세계로 향하고, 세계로 초월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행위하는 몸은 그 자체로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몸이 세계와 몸 밖에 있는 다른 실체 또는 작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몸은 항상 비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한 사람의 현실성 자체이며, 세계의 의미를 육화하여 실현한다.(강미라, 2011) 이와 같이 몸은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그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을 사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현상학이란 주체와 지각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경험에 관한 이론이다. 현상학은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질은 객관적 과학적 본질과는 달리 주체에 의해서 보아질 때 비로소 참다운 본질을 의미한다. 즉 본질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의복에서 규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상학에서 말하는 '지각(perception)'이란 신체로부터 이탈된 투명한 존재론적 구조를 갖는 의식 주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를 갖고 세계를 체험하는 세계내의 존재로서의 주체에 의해 세계와 얽힌 관계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정은희, 2009)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의 관점은 몸과 몸의 확장된 매체로서의 복식을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3.2. 복식에 나타난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2차 대전 후 메를로-퐁티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은 일상의 지각 양

식에 관한 문제를 현상학적 입장에서 검토한 것으로서 전후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베이커(Baker, 1989/1993)에 의하면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예술세계에서의 논의를 일으킨 주제였으며 현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사고와 추상을 지향한 금세기 전환기의 지적 경험을 종합하는 새로운 아방가르드였다. 그는 현상학을 통해 예술사의 미니멀리즘을 바라보았다.

현상학에서의 현상은 대상과 의식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현상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상의 본질을 보는데 있다.(이정욱, 1997) 이것은 어떤 것을 반성 이전의 상태, 객관화 이전의 상태, 과학적 사유가 이념화하기 이전의 상태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굳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의 표현의 근간은 현상학을 관통한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적 몸에 대한 아름다움과 꾸며지고 치장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공간이라는 영역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과 미니멀리즘은 자연 친화적 트렌드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메를로-퐁티의 몸에 관한 철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복식사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는 권력으로부터 탈피된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표현이며, 둘째는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 존재로의 회귀라는 측면이다.

계급 간 다시 말해서 권력자와 비권력자 간의 힘의 긴장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복식 행동이 복식사의 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예를 들면 성직자의 복식은 지배 권력 뿐 아니라 성 권력 등 모든 힘의 관계에서 초월한 복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상황 이외에도 권력의 족쇄에서 벗어난 복식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친환경이 대두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한 회의로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불필요한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들로부터 초월한 의복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모더니즘 문화가 상정하고 명명해 온 모든 카테고리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창조를 자극한다. 마르탱 마르젤라(Martin Margiela)는 가장 포스트모던한 디자이너 중 한명일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패션쇼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복식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계급의 표시나 인종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마르탱 마르젤라는 이처럼 성이나 인종과 같은 계급의 차별과 추종, 그리고 저항이 만들어가던 패션 사이클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는 매우 전위적인 방식으로 패션 세계를 전개시켰다.



[그림 6] 마르탱 마르지엘라 작품 I (출처 : Seeling, C. (2010). Fashion. p.398.)



[그림 7] 마르탱 마르지엘라 작품 II (출처 : Blackman, C. (2012). 100 Years of Fashion. p.342.)

그는 또한 인간을 계급 투쟁의 장 안에서 탈피시

키고 문화 이전의 자연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주체적으로 소통하는 존재임을 일깨웠다. 그는 사물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개념적인 디자인 시도를 선보였다. [그림 7]은 고정관념에 의해 부가된 역할에서 벗어나 서로가 열개가 되어 전혀 다른 용도의 사물로 탄생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준다. 마르탱 마르젤라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그의 작품에서 일상적 사물에 부여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무한한 창조의 힘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디자인 분야의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는 북유럽 특히 핀란드 디자인의 주제는 자연과 교감하고 순화하는 데에 있다. 그들의 디자인에는 계급 간의 투쟁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그보다는 자연과 순화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그에 걸맞는 단순하고 실용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그 나라 디자인의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개념은 복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림 8]은 마리메코(marimekko)의 패션 디자인 사례이다. 기능적이고 단순한 형태이며, 자연의 형태를 본 딴 문양의 친환경 소재의 직물 디자인으로 특징 지워진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전제로 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마리메코(marimekko)의 친환경 디자인 (출처 : <http://www.marimekko.com>)



[그림 9] 이광호 작가와 펜디의 콜라보레이션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인간이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삶을 꾸려가던 방식이 디자인의 주요 테크닉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추구 역시 권력이 상정해 온 계급의 역사에서 탈피한 생활방식이며 이러한 삶 속에서 창조되는 디자인 제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복식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응용되어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거나 직접 도입되어 패션이 창작되고 있다. [그림 9]는 이광호 작가의 매듭 기법이 이태리 브랜드 펜디의 가방 작업에 응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유년 시절 시골에서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짚 등 자연 재료로 일상 생활의 도구를 만들던 추억에서 이와같은 창작 기법을 개발해 냈으며, 이를 통해 인간적인 따스한 온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사실상 동양에서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이다. 일본 디자이너를 비롯한 동양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몸을 정신과 분리된 존재라기 보다는 정신과 합일되고 주위 환경과 공감하는 실체로 파악하여 왔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몸과 옷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 놀음이라는 명제는 당시 서양인들을 매료시켰다. 서양의 복식은 몸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심지어는 벗어 놓은 상태에서도 몸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에 반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작용 방법에 따라 의복과 몸 사이의 공간을 변형시키는 구조의 동양 복식은 조형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혁신적인 형태로 비춰진 것이다.



[그림 10] 이세이 미야케 작품 (출처 : Blackman, C. (2012). 100 Years of Fashion, p.338.)

4. 복식에 나타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비교 분석

푸코의 계보학은 그동안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들의 기저를 탐색하고 그것들의 형성과정과 출처 및 발생의 맥락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태들에 내재한 허구와 우연성을 지적하여 특정한 실천이 진리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작동하게 하는 근거를 파헤친다. 그는 지층내부에서 벌어지는 힘들의 역학관계를 통해 담론 실천의 변환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때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권력이다. 변화과정을 일으키는 동인이 푸코에게서는 권력인 셈이다. (홍은영, 2008) 그의 몸에 대한 관심은 그 모습의 변화가 결국 권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코의 권력 이론을 이해하고, 그의 관점에서 몸의 양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복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할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문제는 본질이나 인식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각의 문제에 있다. 이것은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작용이 지각의 세계에 있음을 보고 그 근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학의 과제를 시사한다. 이를테면 절대자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인간과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메를로-퐁티는 개인과 상관된 자연적인 세계 문제에 열중한다. 이런 특성은 프랑스 실존주의적 철학의 어떤 특수성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인류학적인 관점을 지닌 메를로-퐁티의 독자적인 철학적 특성으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박준원, 2000) 복식의 변화의 원인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인간의 몸 자체와 몸을 통한 인간의 지각 그리고 주변과의 상호 작용에 따른 역동적인 의식의 작용 또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관점 역시 복식 형성의 원인을 밝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철학자들의 상이한 관점들로부터 몸을 이해하고 그 확장된 매체로서 복식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복식 뿐 아니라 과거의 복식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복식 변화의 메카니즘을 밝혀내는 근간이 될 것이다.

	푸코		메를로-퐁티	
몸개념	* 몸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존재		* 몸이 능동적으로 삶을 전개함	
	* 몸은 권력의 객체		* 몸은 지각과 행동의 주체	
	* 몸은 권력 행사의 장		* 몸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	
복식 형성 동인	* 권력에 의한 이상미		*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	
	* 권력에 대한 저항		* 자연의 일부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복식 사례	* 이상미	빅토리안 남녀 복식 등	* 정신적 가치	신부 승려 등 성직자 복식 동양 혹은 북유럽 디자이너 복식
	* 저항	쥬트 수트 등 하위문화복식	* 친환경	

[표 1] 복식에 표현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철학자들의 관점과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몸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복식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자 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철학자들의 논의는 복식사의

어느 한 부분을 유용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식사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입장의 차이점과 양립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정신을 중요시하던 이전의 철학 풍조에서 벗어나 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탐구하였다. 푸코는 몸을 통하여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주체에 대해 연구하였다. 메를로-퐁티는 심신이원론을 벗어나 몸과 정신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 작용하는 몸의 주체성에 주목하였다. 즉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으로서 몸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강미라(2011)에 의하면 푸코의 ‘몸-권력’ 개념과 메를로-퐁티의 ‘몸-주체’ 개념은 몸의 이중성 즉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푸코의 경우 몸은 권력에 의해 압도된 수동적인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몸이 행동의 형태들을 취하는데 있어 능동적임을 잘 보여준다. 푸코는 정치적 의도와 기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하는 반면 메를로-퐁티는 역사적 행위 혹은 습관을 세계에의 존재의 방식으로서의 실존적 기증에 입각하여 이해한다. 푸코는 상호적 행위 역시 권력 관계 내에서 파악하는데 비해 메를로-퐁티가 상호 신체성으로부터 주체의 사회성을 근거 짓는다. 그러나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둘 다 몸이 사회 역사성을 갖는다는 점에 동의하며, 또한 몸이 사회 및 역사와 관계에 맺음에 있어 행동하는 것 으로서의 능동적인 면과 외부의 것에 영향 받는 수동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 합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우리 자신이 겪는 살아있는 고유한 몸이며 능동적인 몸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역사적으로 각인된 것이며 외적 작용에 수동적인 물질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양자 택일할 필요가 없다. 몸-주체와 몸-권력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대화 가능한 개념이다. 즉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각각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뿐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몸은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처럼 두 철학자의 견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매체이며, 따라서 복식도 그러한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애초에 푸코가 몸과 권력관계를 논할 때 그 의도는 대중들의 권력에 대한 무의식적 추종을 지적하고 주체성의 회복을 주장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는 결국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과의 강력한 연결 고리를 전체

로 하고 있다.

복식미학에서 푸코의 몸은 권력에 순응하는 존재이고 복식은 권력이 상징한 미의 결과였다. 같은 시기에 나타난 복식의 일탈 행위는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한 시대에 나타난 복식 양상은 푸코의 권력 이론으로 설명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박정자(2011, p.211)에 의하면 “19세기에 영국의 사회 계급을 면밀히 조사한 매튜 아놀드는 각 계급에 외계인과도 같은 이단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상력이 빈약하고 이해력이 협소한 사람들은 상류층으로 올라가려 애를 쓰지만, 재능과 감수성을 가진 소수들은 계급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퍼셀은 그런 사람들을 현대의 미국에 적용하여 X피플이라 명명하고, 계급의 제약과 불안감에서 벗어난 이들 X피플만이 미국의 진정한 이념인 자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식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사고를 반영한 예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즉 주로 동양 디자이너들이나 북유럽디자이너들의 간간 존재에 대한 친자연적 시각들이 계급 간의 투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이념을 표출하게 해 오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권력은 현재까지 복식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 시기에 확립된 이상적 미는 모든 인종에게 강요되었고 이는 때때로 억압으로 작용하여왔다.

푸코의 몸 철학은 분명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철학자의 논점을 연결선상에서 인식하게 되면 복식을 해석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이 새롭게 얻어진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이 어떻게 복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푸코 및 메를로-퐁티의 해석과 관점의 장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합하여 복식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에 대한 철학을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복식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복식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모두 서양 철학이 전통적으로 몸을 무시해온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펼친 철학자들이다. 서양 철학은 대체로 인간 존재를 영혼, 정신, 또는 이성에 입각하여 규명해왔으며, 따라서 몸은 그것들에 부차적이거나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몸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존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몸을 단순히 생리적 체계로 환원하는 입장에 대한 반대를 내포한다. 인간이 몸을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데카르트의 동물-기계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며,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그러므로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푸코는 행위들이나 습관들을 정치적 역사와 기능에 입각해 이해하는데 반해 메를로-퐁티는 역사적 행위들이나 습관들을 세계에의 존재 방식으로 보고 실존적 기능에 근거해 이해하였다.(강미라, 2011)

그러나 푸코의 몸 철학은 권력에 의한 무의식적 추종에 대한 경고였으며,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은 주체성 확립이라는 대안이었다. 이점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철학자의 견해는 일련의 철학으로 거듭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복식사의 사례들은 일견 대립되어 보이는 두 철학자들의 몸에 관한 견해를 경고와 대안이라는 연결선 상에 두고 적용한다면 복식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복식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중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권력과 저항이라는 행동을 초월한 주체로서의 행동 이러한 두 가지 견지에서 복식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푸코의 몸-권력 이론은 권력이 상징해온 시대적 이상미에 따른 복식과 이에 대한 저항적 복식을 설명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의 몸-주체 이론은 권력 투쟁의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형성된 복식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사는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몸에 관한 두 가지 철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류와 비주류의 복식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한 점이다.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입장이 현재를 바탕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것임을 상기할 때,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고의 틀을 고대부터 현재까지 적용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되도록 복식사의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푸코는 권력을 거시 권력

과 미식 권력으로 분류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괄목할 만한 복식의 현상을 다룬다보니 거시 권력의 측면에서 복식사를 파악하였다. 향후에는 사회 내에 그물망 처럼 퍼져 있는 미시 권력 간의 힘의 작용에 따른 복식 현상을 고찰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라 (2011). 『몸 주체 권력』. 서울 : 이학사.
- 김성희 (2006). 「20세기 후기 미술에서 신체 기호의 의미 분석과 해석- 아바카노비치와 키키 스미스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II』. 서울 : 교문사.
- 박은경 (2009).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몸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9(5), 53-70.
- 박정자 (2011). 『박정자의 노마드 강의 -마이클 잭슨에서 테리다까지』. 서울 : 기과량.
- 박준원 (2000). 메를로-퐁티와 예술의 문제. 『미학』, 29, 73-98.
- 양운덕 (2003). 『미셸 푸코』. 서울 : 살림.
- 이정옥 (1997). 현대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논문집』, 13(97, 12), 150-160.
- 정은희 (2009). 「메를로-퐁티에서의 '몸'과 소통의 미학」,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일준 편역 (1994). 『미셸푸코의 권력이론』. 서울 : 새물결.
- 홍은영 (2008). 푸코와 생물학적 성담론. 『철학연구』, 105, 439-440.
- Baker, K (1989). Minimalism, 김수기 역 (1993). 『미니멀리즘』. 서울 : 열화당.
- Blackman, C. (2012). 『100 Years of Fashion』. London: Laurence King.
- Craik, J. (1994).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 Foucault, M. (1976). L'histoire de la sexualite. 이민선 (2006). 권력 구조가 복식의 성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6(5), 91.에서 재인용
- Hopkins, J. (2011). 『BASICS: Fashion Design : Menswear』. Lausanne : ava.
- Merleau-Ponty, M. (1964). L'oeil et l'esprit. 김정아 역 (2008). 『눈과 마음』. 서울 : 마음산책.
- Seeling, C. (2010). 『Fashion』. Frankfurt: h.f.ullmann.
- Simmel, G. (1904).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10, 130-155.
- Ewing, W. (1994). The Body. 오성환 역 (1997). 『몸』. 서울 : 까치.
- <http://blog.naver.com/imkjw337/40126116782>
- <http://www.marimekko.com>
- 모텔 이사벨로 카로, 거식증으로 사망!. (2012.8.16), <http://blog.naver.com/kos7357?Redirect=Log&logNo=119229479>
- 펜디도 반한 한국 디자이너 이광호. (2011.3.24). 「한국경제」, 2012.8.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